

잃어버린 30년: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시간

성경본문 <출애굽기 12장 37절 ~ 42절>

[37]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숙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38]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39]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밭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0]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사백삼십 년이라 [41] 사백삼십 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와 그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첫째 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산지 43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수백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실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내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을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1.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37]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숙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38]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브람(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에게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죄가 심판의 수준까지 가득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 실체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번창할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생활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고대 근동 지역과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번영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430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단순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한 축복의 과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수준으로 자라고 성숙하도록 이끄십니다.

2.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40]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사백삼십 년이라 [41] 사백삼십

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에는 (창 15:13-14) [13] ...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던 어려움의 시기 400년과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거주했던 430년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족보를 통해서 이유와 기간을 유추하기도 하고, 야곱(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던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기 시작한 시점까지의 시간적 차이를 이유로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400년 동안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의 어떤 시점인지는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으셨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_구약 처음 5권)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모세는 아브람에게 약속하셨던 400년을,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하면서 기록한 430년 둘 다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애굽 군사를 살해한 것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왕자로서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을 이룰 수 있었을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모세가 보았을 때, 이 30년의 차이는 자신의 광야에서의 삶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모세에게 후회의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시기가 지연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론은 이렇습니다.

[41] **사백삼십 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시간도 그를 여호와와 군대를 이끌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경험했던 군인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기를 제대로 갖춘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노예생활로 점철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시며 군대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군대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일상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맡기십시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비전, 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빛시키고 사용하소서.
2.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당신의 군사로 사용하소서.